

제48회 중앙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연구윤리교육

-부당한 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중앙어문학회 연구윤리위원장
엄홍준(계명대학교)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제12조)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정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은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참고문헌

부록

특히 논증구조 표절 및 아이디어 표절과 관련해서는 이것들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표절 유형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2차 문헌 표절 및 자기 표절이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또한 짜깁기 표절과 말바꿔쓰기 표절의 경우는 큰 범주에서 내용 표절에 속한다고 본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개정 지침에서는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다음의 제12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규정하였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

이 개정 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부당한 저자 표시를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

영국 소재 출판윤리위원회(The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 제시하는 신진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²³⁾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기본 지침을 따르고 있다. 저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가. 연구의 이해와 설계, 또는 데이터의 획득, 또는 데이터의 분석과 해석에 실제로 기여한 경우
- 나. 원고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내용을 위해 이 초안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경우
- 다. 출판 버전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

예

COPE는 위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되는 경우에 저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지침을 따른다. 그리고 기금을 획득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연구 일반에 대해 감독하는 경우에는 저자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간략히 소개된 부당한 저자 표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연구보조원이 저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목록에서 누락되었음
- 나. 연구 후원이 연구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여론 주도자를 저자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음
- 다. A가 비평글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A의 상관이 저자로 표기되었음. A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비평글의 최종 원고가 제출되었음

23)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 예

또한 COPE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올바른 저자 표시와 저작권에서 핵심 개념들에 대한 설명, 관련 사례, 그리고 올바른 대응 방법에 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대부분 학술지들은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 프로젝트의 기여자들에 대한 감사의 글을 허용하고 장려한다. ICMJE 지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저자들이 아닌 모든 연구 기여자의 이름은 감사의 글에서 명기되어야 하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이런 방식에서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명시된 점을 알아야 한다. (주로 미국에서) 일부 학술지들은 이들이 확인했는지에 관한 직접 서명 확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의제기/항소(Appeals):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이 저자에 표기되었다면, 당신은 해당 학술지 편집국에 당신의 이름을 논문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편집자들은 저자 삭제의 문제에 관여되는 것을 꺼려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술지들은 ombudsman 제도를 운영하지만, 해당 학술지가 혐의를 제기한 부정행위에 관한 사례들만을 다룬다. 이와 마찬가지로, COPE는 오직 학술지 편집자들이 제기한 사례들만을 청취하는 것이지, 저자에 대해 논쟁되는 사례들에 대한 항소 기구(appeal body)가 아니다.

기여자의 역할과 지위(contributorship): 현재 ICMJE 지침들은 다음과 같이 저자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들의 기여를 기술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저자들은 각자가 무엇을 기여하였는지를 기술해야 하고, 편집자는 해당 정보를 출판해야 한다.' 일부 학술지들은 이런 정보를 출판하지만, 대다수 경우들에서 편집자들의 편의로 인해 이 기준이 이행되고 있다. (Instruction to Authors 참조).

교신 저자(Corresponding authors): 교신 저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증명 등을 받는 사람이고, 세부 연락처가 논문에 기재되어, 독자들이 재출력을 요구하거나 또는 연구 팀과의 접촉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학술지 편집자들은 이를 순수하게 행정적 역할로서 간주하지만, 일부 저자들은 이를 연구 책임자(seniority)와 동일시 여긴다. 연구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공동 저자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누가 교신 저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라. 당분간 세부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저자의 첫 번째 위치와 마지막 위치(First and last authors): 일반적으로 첫 번째 위치가 가장 인기가 많다. 그래서 연구들을 언급할 때, 예를 들면, '스미스 외는 다음을 보여준다.'와 같이 첫 번째로 제시된 저자 이름을 사용하는 관행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순서로 이름이 표기된 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에 가장 기여도가 큰 것으로 간주된다. 때로는 마지막 순서로 이름이 표기된 저자에게 중요성이 부여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관한 입장들은 서로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종종 저자들은 전문 지식과 지도에 기여했던 연구 팀의 상급자를 마지막 위치에 표기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만약 해당 저자가 연구 설계, 데이터의 해석에 관여했고, 비판적으로 출판물 검토하였다면, ICMJE의 기준과 부합할 수 있다. 하지만 비판가들은 마지막 순서의 저자가 종종 손님(guest) 또는 명예 저자(honorary author)라는 점을 의심하기도 한다(저자의 순서 참조).

유령 저자(Ghost authors): 이 표현은 두 가지 방식에서 사용된다. 보통 역할이 인식되지 않은 (종종 상업적 후원자들이 제시하는) 전문 작가들과 관련된다. 이런 작가들이 연구들의 설계 또는 데이터의 수집 또는 해석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ICMJE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관여가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갈등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용어는 또한 연구 프로젝트에 중요한 기여한 했던 사람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그리고 ICMJE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들로서 목록에 열거되지는 않는다. ICMJE 지침은 이러한 관행을 분명하게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저자들로서 설계된 모든 사람들은 저자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은 목록에 표기되어야 한다.'

선물 저자(Gift authors): 저자들로서 목록에 표기되었지만 연구에 어떤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므로 이들은 ICMJ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들은 아첨을 위해 (또는 이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첨가되는 상급자(예를 들면, 부서의 장)일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다른 선물 저자의 유형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자신의 기여와 상관 없이, 단순히 당신의 출판 목록들을 부풀리기 위해, 당신을 위해 언젠가 같은 일을 해 줄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름이 추가된 동료이다.

집단 저자(Group authorship): 일부 학술지들은 집단 이름(예를 들면, XYZ 연구 집단)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많은 학술지들은 기여자들이 목록에 (주로 알파벳 순서로) 열거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글쓰기 집단 또한 이름이 명기되도록 요구한다. 집단 이름과 관련된 한 가지 문제는 이 이름이 종종 Medline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잘못 입력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때로는 기여자들을 알파벳 순서로 열거할 때, 첫 번째 순서의 사람이 논문에서 의도하는 저자 지위와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제 1 저자가 되기도 한다.



-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참고문헌
- 부록

보증인(Guarantor): 우리는 통계 방법들을 설명하기 위해 방사선 기사 또는 X-ray를 해석하기 위한 통계학자를 기대해야 하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문적인 고려로 인해, 가장 최근의 ICMJE의 지침은 개인들에게 모든 연구의 양상에 대해 책임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편집자들은 한 사람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그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저자들로서 설계된 모든 사람들은 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을 갖춘 모든 저자들이 목록에 표기되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해서 그 내용의 적절한 부분에 대해 공격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저자들은 연구 전반에 걸쳐, 연구의 시작부터 논문의 출판에 이르기까지,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저자를 위한 안내서(Instructions to authors): 학술지 편집자들 사이에는 저자 문제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지만, 저자의 목록에서 제시되는 방식들과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차이들도 있다. 당신은 목표로 하는 학술지의 저자를 위한 안내서(Instructions to Authors)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저자의 수(Number of authors): 이에 대해서는 어떤 규칙도 없다. 과거 Medline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열거되는 저자들의 수를 제한했다. 이런 점은 저자들의 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고(대부분 집단들이 제한된 수의 범위에서 저자를 유지하고자 했다). 보다 큰 집단에서는 아마도 자리확보를 위해 다름이 증가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저자들을 표기한다. 어떻게 많은 저자들이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누가 저자로서 자격을 갖춘 것인지를 동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그래서 자격을 갖춘 모든 저자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자들이 함께 하게 되면 주로 논문을 준비하고, 검토하고, 최종 마무리하기 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저자의 순서(Order of authors): ICMJE의 지침에 따르면, 저자의 순서는 '공동 저자들의 공동 결정(a joint decision of co-authors)'이어야 한다. 저자들은 목록에 열거된 저자들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자들이 오히려 목록에 열거된 저자들의 순서에 관해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자의 순서는, 어느 순서든지 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일부 집단들은 저자들을 알파벳 순서로 표기하면서, 때로는 모든 저자들이 동등하게 해당 연구와 출판에 기여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할 경우, 편집자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올바른 저자 표시에서 많은 논의가 따르는 유형이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거나 지도학생 외의 사람과 공동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이다.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지도학생은 지도교수로부터 많은 부분들에 걸쳐 논문지도를 받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경우, 지도교수가 단독 명의로 게재 또는 발표하거나, 지도학생을 배제한 채 다른 사람을 공동연구자로 해서 게재 또는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논문심사 교수가 논문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저자의 자격을 일정 정도 갖추었다면, 지도교수와 논문심사교수, 그리고 지도학생 등이 포함된 저자 자격 표시는 관련 학술지 및 학회기관의 규정에 따름으로써 올바른 연구행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예

학문 분야별로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때, 지도교수의 저자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때, 지도교수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허용된다면 지도교수에게 어떤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 학문분야에 따라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는 방식이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학위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지도교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학위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학술지 논문을 쓸 때 최소한 지도교수가 공동저자의 자격을 갖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때, 적절한 저자 표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도 학생이 단독 저자’(26.9%), ‘지도 교수가 제1저자, 지도 학생이 공동저자’(7.4%), ‘지도 교수가 단독 저자’(2.3%) 순이었다.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할 경우 적절한 저자 표시〉

지도교수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도학생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단독 저자로 그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학생과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에 대한 정당한 저자 자격을 부여받아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게재 및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 범위에서 인정되는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 제2장 | 제3장 | **제4장** | 제5장 | 제6장 | 제7장 | 제8장 | 참고문헌 | 부록